<추경 증액 민생 시민 단체 기자회견>

'추경 증액 기자회견'을 오늘 오후 국회 본청 앞에서 가졌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생활경제연구소, 한상총련, 해우소포럼, 시민연대 '함께', 청년김대중, 우분투포럼, 민생경제청년네트워크 등 시민사회가 함께하셨습니다.

2020년 소상공인 대출이 전년대비 48조 늘었고, 2021년에는 작년 대비 두배가 넘게 증가했습니다. 코로나 대유행 2년 만에 소상공인들 대출은 이미 한계점에 도달한 것입니다.

저도 국회의원이 되기 전에 똑같은 서민이었습니다. 돈이 필요한데 구할 곳이 없는 상황이 가장 끔찍한 일임을 누구보다도 잘 압니다.

대통령님과 정부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이 얼마나 더 고통 속에 계셔야 이 상황을 알 수 있는 것입니까?

우리 민주당은 35조의 추경 증액을 제시하였습니다. 대통령님과 정부가 '사람이 먼저다' 라는 초심을 국민께 확인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 산자위에서 중기부 추경안이 심의를 시작합니다. 저도 국회에서 추경 증액을 위해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2022.02.03.

더불어민주당 양이원영의원, 민병덕의원, 민생경제연구소,
생활경제연구소, 한상총련, 해우소포럼, 시민연대 '함께',
청년김대중, 우분투포럼, 민생경제청년네트워크